

특급호텔 웨딩사업 짹짹하네

최근 신혼부부의 호텔예약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광주지역 특급호텔들이 웨딩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단순한 숙박업을 넘어 결혼식과 연회 행사 등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알짜 사업'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지역 특급호텔들이 따르면 매년 결혼식과 연회행사가 치러지는 날이 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급인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결혼식만 25%가 늘었다. 돌잔치 등 연회 행사를 합쳐도 전체적으로 20% 이상 상승이 증가해 호텔 매출의 '효자'가 됐다. 결혼식 성수기인 올 10~11월 가을 시즌은 이미 예약이 끝나 더 이상 고객을 받기가 힘들 정

여유로운 예식시간·고급화...알짜사업 부상

라마다·홀리데이인 광주 등 가을 예약 빠곡

다.

지난해 말 오픈한 특급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은 기존의 결혼식장(에볼루션 웨딩홀)을 이용, 일반에 식과 호텔예식을 병행하면서 빠르게 '신혼부부'를 흡수하고 있다.

특히 일반예식을 위해 방문했던 이용객들도 보다 전문적인 호텔예식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져 가을 시즌 결혼식 예약은 지난 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 호텔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급의 신양파크호텔 역시 올 가을 결혼식 예약이 빠곡하다. 아직 빈 날짜가 있긴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호텔 결혼식'의 꿈을 접어야 할 처지다.

이처럼 특급호텔에서의 결혼식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예식장보다 더 전문적인 호텔예식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져 가을 시즌 결혼식 예약은 지난 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 호텔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급호텔들은 하루 2차례(점심 1·저녁 1)만 결혼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결혼일정이 빠곡

한 일반 결혼식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식을 지켜볼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도 빠듯한 일정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요리와 식장의 인테리어, 꽃장식도 차별 요소로 작용,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것도 장점이다.

라마다플라자 관계자는 "호텔 연회장을 이용한 결혼식은 일반식장에 비해 다소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일반식장보다 만족스러운 요소가 더 많아 문의하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주말이면 토·일요일 4팀밖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전에 예약을 끝내야 원하는 날짜를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웃음꽃 핀 증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10거래일 만에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 코스피가 5% 가까이 급등하고 환율은 급락했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83%(86.56포인트) 오른 1,879.87로 장을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8.5원 급락한 1,070.0원에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여수광양 항만공사 19일 출범

여수항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등의 전반적 운영을 맡게 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폐지되고 대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9일 창립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컨테이너공단이 수행해온 여수항과 광양항의 컨테이너부두 운영 업무 이외에 광양제철부두, 여수국가산단부두 등 여수와 광양지역내 모든 부두 운영을 총괄한다.

직제는 경영본부와 운영본부 등 2개 본부와 감사팀 등 9개팀, 1사업소(여수사업소) 등으로 구성되며 임원 3명(사장 1, 본부장 2)과 직원 80명이 다.

조대 사장은 이상조(72) 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공단 후신인 만큼 부채도 승계하는데 애초 공단이 지고 있던 1조원대의 부채 중 절반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출자회사 지분 매각 등으로 갚고 나머지는 부두 사용자 등 자체 수입으로 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시민들은 항만공사가 공단의 막대한 부채를 승계하면 경영부실, 항만 물류비 상승 등을 우려해 항만공사 창립을 반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원유 1당 138원 ↑...우윳값 오를듯

회사별 15~18% 안팎 예상...정부 압박' 변수

낙농가와 유업체가 16일 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우윳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공업계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원유가격을 올리기로 한 이상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태도다.

원유는 1당 138원 오르지만, 선례를 볼 때 소비자가 체감하는 우유 가격의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유가공업계 입장에서는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원유 가격 인상 때 운송비나 인건비, 가공비용 등 생산과 판

매에 필요한 다른 비용 상승분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2008년 8월 원유가격을 1당 584원에서 704원으로 120원 인상했을 때는 일주일 만에 1L 들이 흰우유 팩제품의 대형할인점 판매가를 기준으로 서울우유가 1850원에서 300원(16.2%) 올라 2150원이 됐다.

한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남양유업의 '남양 맛있는 우유GT'는 1850원에서 2200원으로 18.9%, 매일유업의 '매일 ESL 우유'는 1850원에서 2180원으로 17.8%가 올랐다.

판매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원

유 가격이 20.5% 오를 때 대형 마트를 기준으로 주요 우유제품이 16.2~18.9% 인상된 것인데 유가공업계는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이번에는 원유가를 19.6%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각 유업체가 2008년과 같은 비례로 우유 가격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서울우유는 15.4%, 남양유업은 18.0%, 매일유업은 17.0% 오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비율대로 계산하면 할인점 가격은 서울우유가 약 2481원, 맛있는 우유GT가 약 2596원, ELS우유가 약 2550원이 된다.

가격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는 편이다.

원유 가격 고시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협상 타결일로부터 한두 달 내에 인상해야 한다는 게 유가공회사의 의견이다.

하지만, 정부가 가격 인상을 늦추도록 압박하는 점이 변수다.

유업체는 연말까지 가격을 올려서 안 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서 원가 변동은 가격에 반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장배추 계약재배 전년의 7배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올해 김장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한 가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3만9000t)의 7배 수준인 27만t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년 생산량(136만t)의 20% 수준에 달하는 물량이다.

농협중앙회는 계약재배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농가가 원할 경

우 계약액의 20%까지 계약자금을 미리 지원해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농협은 또 이상기후 등으로 모종에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예비묘 200만주도 사전에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김장용 가을배추는 이달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심어 10월 중순 이후 출하하게 된다.

/연합뉴스

'외인귀환'에 코스피 1900 눈앞

86P 올라 1879.87...환율은 급락 1070원

국내 주식시장이 10거래일만에 급등하면서 감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5% 가까이 상승했고, 환율은 급락했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83%(86.56포인트) 오른 1879.87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도 열흘 만에

661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매수 우위를 기록한 덕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1800선을 회복할 수 있었다.

개인과 기관은 차익실현에 나서 3974억원, 1910억원의 매도 우위를 각각 기록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것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의 국가부채

문제로 요동쳤던 금융시장이 지난 주말 안정세를 보이면서 불안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가 휴장한 전일 미국 뉴욕 증시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발표 등에 힘입어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아시아 증시 주요 지수도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6%(22.08포인트) 급등한 496.23으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5원 급락한 1070.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주식을 6000억원 넘게 순매수했고 위안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 달러 약세에 일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역 금융권 예금 늘고 대출 줄어

수신 6760억 증가...여신은 증가폭 감소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지난 6월 중 예금은 크게 늘고, 대출은 증가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2011년 6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금융기관 수신은 6760억원이 늘어난 27만1100억원(3231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예금은행의 수신은 정기예금(+4996억원)→2043억원이 크게 줄면서 전달보다 증가폭이 축소(+3549억원)→+2615억원)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은 자산운용회사(-194억원)→+276억원)와 상호금융(-1210억원)→+350억원)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폭이 전월(-318억원)→+4146억원)했다.

또 금융기관의 여신은 증가폭이 축소(+4816억원)→+1122억원)된 가운데 예금은행의 여신은 전달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2855억원)→-111억원)했고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은 증가폭이 축소(+1962억원)→+1122억원)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은 자산운용회사(-194억원)→+276억원)와 상호금융(-1210억원)→+350억원)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폭이 전월(-318억원)→+4146억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7월 수출 506억달러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506억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무역수지는 1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16일 관세청이 집계한 '7월 수출입 동향'(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506억달러, 수입은 443억달러로 무역수지 흑자 63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6월에 비해 5.8%,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5.2% 증가한 것이며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4월(486억달러)을 뛰어넘은 역대 최고치였다.

반면 무역수지 흑자(-1.8%), 반도체(11.8%), 액정디바이스(-21%) 등 IT제품의 수출은 감소했다. /연합뉴스

비새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전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중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후

공장직영 / 완벽한시공 / 확실한S/A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능칼라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師의 차만 남품
名師의 高貴한 선물은 名師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감동Set 다담Set 우전갈로 감시Set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7007-8 T. 222-2902, 3973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동 763-4